

[홈](#) > [뉴스](#) > [정치](#) > [행정/자치](#)

도 산하·출연기관 회계 '엉터리'

법인세 신고 안해 2억4592만원 손실·지원사업비 2년간 36건 미정산 등
도 감사관실 회계감사

2009년 06월 01일 (월)

이호

도 산하 및 출연 기관들의 회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관실은 적자경영 상태인 강릉·삼척·영월 등 3개 의료원을 비롯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발전연구원 등 도 산하 및 출연기관들을 대상으로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은 법정 신고기간 내에 법인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따른 법인세 2억4592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관련 업무를 방치해 이를 환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비 정산검사를 소홀히해 2007년, 2008년 2년간 지원사업비 중 36건 9910만원이 미정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자체수익금 7억원을 이자율(6.6%)이 높고 수시 전환이 가능한 시중은행 적립 대신 이자율(5.49%)이 낮고 중도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립해 사실상 1230만원의 이자수익 손실을 가져왔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연간 식재료 예산이 2억여원이 들어가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식재료인 채소, 생선류, 육류, 김치류 등을 납품하는 3개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다.

또 사생해외배낭연수에 참가비를 낸 학사생 26명에게는 지원금의 50%를 지원한 반면 직원 3명은 지원금의 100%를 부적정하게 지원했고, 여러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출장조치 없이 무단 국외여행을 실시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2007, 2008년 2년간 집행된 연구장려금 총 2억8242만원 중 집행잔액 9290만원을 이사회 의결 후 도지사 승인 등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임의로 집행했다.

또 2개 사업 총 3억1467만7000원의 수탁예산을 외부업체에 총 2억1800만원(평균 위탁률68.1%)에 위탁계약을 체결, 수탁용역 중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해 위탁용역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겼으며 용역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 지방의원 등의 해외출장경비 76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적자규모가 전년(63억1800만원)대비 10% 늘어난 총 69억4900만원

이 발생, 누적 부채가 총 606억1200만원에 이르는 도내 의료원의 회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의 구인난 등을 이유로 진료성과급 기준을 무시한 채 연봉계약을 추진, 전문의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4억6735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영월의료원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시간 외 수당 등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5243만원을 기준액보다 더 지급했다.

강릉의료원은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의용품 구매량과 재고 사이에 245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수입금 처리업무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호
leeho@kado.net

.....
.....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창닫기